

일본 대지진

日정부 구호대책 '낙제'

식료품·생활용품 제대로 공급 안돼 이재민들 불만

원전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에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원전사태 미숙 대응”=지진 발생 초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며 냉정을 유지했던 일본 언론들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위기 대응 능력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또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번 원전 사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 반경 20km 이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반경

20~30km 내에 있는 14만명에게는 집 안에 머물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미흡한 조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전 반경 80km 이내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해당 지역을 탈출해 안전한 곳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구호 대책 미흡=일본 대지진 후 ‘방사선 공포’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福島)현의 사토 유헤이 지사도 중앙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토 지사는 16일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BBC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거주민들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됐지만 따뜻한 음식은 물론 연료, 의약품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등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대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서 이재민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피해 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간 총리는 지난 12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대피소에 식사, 물, 모포, 난사도 중앙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토 지사는 16일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BBC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거주민들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됐지만 따뜻한 음식은 물론 연료, 의약품 등 기본적인

그러나 대지진.쓰나미 발생 7일째인 17일에도 물류가 정체상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쿄 등에는 구호물품이 쌓여있지만, 이를 수송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연합뉴스

‘연락두절’ 교민 4명 정부 대응팀 첫 구조

한국 정부가 도호쿠(東北) 대지진 이후 교통과 통신 두절로 고립상태에 있던 우리 국민을 처음으로 구조해냈다.

주일 센다이 총영사관에 파견된 정 부 신속대응팀은 16일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石巻)시의 한 주택에서 강진 이후 6일간 고립돼 있던 교민 김영순(여·52·이시노마키 거주)씨 등 4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사람들은 김씨를 만나러 온 언니 점순(62)·영분(60)씨와 매형 서원석(69)씨다. 점순씨 등은 영순씨를 만나러 일본에 온 뒤 김씨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지진과 쓰나미가 닥쳐 그동안 고립 상태를 겪었다. 이들이 처음 외부와 연락이 닿은 것은 고립 5일째이던 15일이었다. 지인에게 딱 한 차례 전화가 수신돼 고립 사실을 알렸고 이들의 소재지는 한국에 있던 조카에게 전해졌다.

연합뉴스

日 돕기 끊임없는 온정 물결

현대차그룹 1억엔

현대자동차그룹은 17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의 재난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 1억엔(약 14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일본적십자사에 전달돼 모포·식료품 등의 구호물품 구입에 쓰이게 된다.

금호아시아나 6천만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7일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6000만엔(한화 약 8억4000만원)을 성금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일본지역 본부를 통해 미야기현과 이바라키현, 후쿠시마현 등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는 피해지역에 각 2000만엔씩 기부할 방침이다.

현대중 5000만엔

현대중공업그룹은 17일 현대중공업 도쿄지사를 통해 지진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5000만엔을 일본 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성금이 일본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SK그룹 1억엔

SK그룹은 17일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일본 국민을 돕기 위해 1억엔의 구호 성금을 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피해 복구 성금 1억엔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하며, 별도로 그룹 관계사 임직원들이 이날부터 2주간 자체적으로 성금을 모아 일본에 전달하기로 했다.

조선대 교직원 등 모금

조선대 일본어과 학생들도 17일부터 일본 돕기 모금 활동을 들어갔다. 조선대 교직원들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을 통해 3월 급여에서 기본급 기준 0.5%를 공제해 기금을 모으고 있다.

밝은안과21병원 성금

밝은안과21병원 다음달 30일까지 직원 성금은 물론 병원에 모금함을 설치해 고객들과도 온정나누기에 동참한다. 또 라식수술을 할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강행욱)는 지난 16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호준)를 방문, 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위한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경우 1건당 1만원을 적립, 광주시에 기탁할 예정이다.

장동건·원빈 2억씩



배우 장동건(사진 왼쪽)이 17일 자신이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일본 지진·쓰나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억 원을 기부했다.

배우 원빈도 17일 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돕고자 2억원을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

SM 10억원 기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가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원을 기부했다고 17일 전했다. SM은 “일본 국민들과 우리 교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골퍼 전미정 1천만엔

일본여자프로 골프(J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전미정(29·진로재팬)이 일본 돕기 성금으로 1천만엔을 내었다. 일본 도쿄에 집이 있는 전미정은 17일 “지난 11일 시작된 요코하마 PRGR 레이디스컵 대회가 지진으로 취소되면서 13일 밤 한국으

로 돌아왔다”며 “지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적십자사에 성금을 냈다”고 말했다.

광복회 1천만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벌인 애국지사들과 그 유족으로 구성된 광복회도 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 대열에 합류했다. 차창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광복회 임직원은 17일 오후 서울 명동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성금 1천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조총련 모금 활동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동포들에게 나섰다. 17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조총련은 16일 ‘총련중앙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국내 노동계도 동참

국내 노동계가 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이흥득 위원장 이름으로 일본 노총에 위로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조만간 대표자회의를 통해 조직적인 모금 운동을 결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15일 일본의 전국노동조합연맹협의회, 전 국노동조합총연합, 일본 노총에 각각 서한을 보내 애도와 연대의 뜻을 표시했다. 전국 6개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궤도연대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일본 대지진 피해와 관련한 모금 운동 등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잇단 여진... 후지산 폭발 가능성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후지산(富士山) 화산의 분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 여파로 일본 본토 내륙에서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가나가와(神奈川県) 현 지질학연구소에 따르면 온천지역으로 일

본에서 가장 유명한 하코네의 화산 주변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최대 규모 4.8의 지진이 약 850회 관측됐다.

나고야대학의 화산·방재연구소 센터의 한 교수는 “화산의 지하는 마그마와 열수로 파괴되기 쉽기 때문에 군소 지진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후지산과 관계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종두

웃기만평



어차피 부러질 허린데요, 뭘-



완전무장 등교 방사성 물질 확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도쿄의 초등학생들이 17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더욱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는 국민의 이해와 성원에 힘입어 원자력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2009년에는 UAE에 한국형원전을 수출함으로써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 쓰나미 등의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 안전하게 설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원전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 원전의 안전성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여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수력원자력 전 임직원은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앞으로도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이 국민의 신뢰 속에 지속발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